

국제유가 상승이 대전경제에 미치는 영향

양 준 석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서론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

- 중동지역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에너지 수출 지역으로,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유가의 공급 불안이 심화되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특히 우리나라는 중동산 수입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고유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으로, OECD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7%로 하락 조정

*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물량 대비 중동 8개국(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 오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69%(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2024년도 기준)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지역기업들의 원자재비, 물류비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시민들의 실질 구매력 저하와 소비심리 위축 초래

- 최근 환율 불안에 더해 고유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 대전 리터당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73원(오피넷, 26.3.31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5% 상승하여 교통비, 물류비 부담 가중
- 고유가에 따라 생활물가 인상의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가 예견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고유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 필요

-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격화 당시와 달리 규모·보복 강도·미국의 태도 모두 더 강경한 상황으로 장기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홍성욱 외,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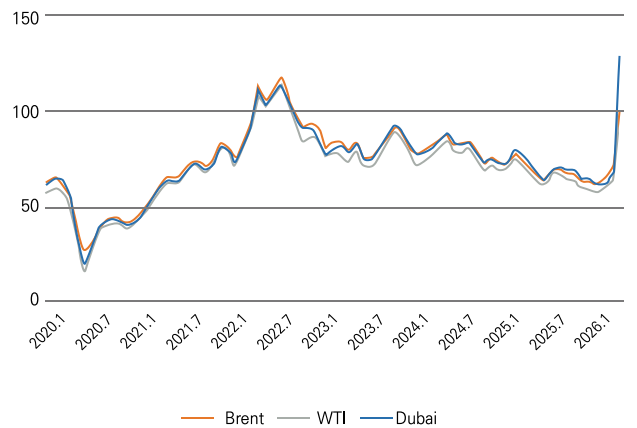
유가 동향

2026년 2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주요 3대 유종이 모두 100달러를 돌파하며 두바이유 121달러, 브렌트유 118달러, WTI 102달러(3월 31일 기준)를 기록

- 2019년 말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2020년 배럴당 20달러대까지 급락하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백신 보급 및 경기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60달러대로 반등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공급불안이 심화되며 3대 유종 모두 배럴당 100달러 상회하는 고유가 국면에 진입
- 2023년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수요 감소로 60~80달러대로 안정세를 찾았으나, 2024년도에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며 변동성 확대

그림 1. 국제유가 추이

(단위 : \$/Bbl)



출처 :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6.3)

미국-이란 전쟁의 항배에 따라 국제유가의 흐름도 결정될 전망

- 전쟁이 일어난 지 1개월이 지난 현지점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이나 군사적 긴장감도 여전히 지속
-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공급 차질이 심화되면서 국제유가는 \$85~90에 이를 것으로 전망(국제금융센터, 2026)

표 1. 미국-이란 전쟁 시나리오별 유가 영향

	시나리오① 단기종료(1~2개월)	시나리오② 장기 소모전(3개월 이상)
근거	미국 내부의 종전 선호 여론과 국제사회의 비난, 비협조, 압박, 고유가 부담	美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는 한, 이란의 항복은 기대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이란의 대리세력을 통한 중동내 국지적 충돌 지속, 여타 중동국의 참전 등
유가 영향	일시 급등 후 \$65~70(사태 이전 1년 평균)로 하락	\$85~90 이상 수준이 중기화
가능성	비교적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자료 : 국제금융센터(2026)

1) 한국은행 경기본부(2008), "최근 유가 상승과 경기지역 경제"의 2장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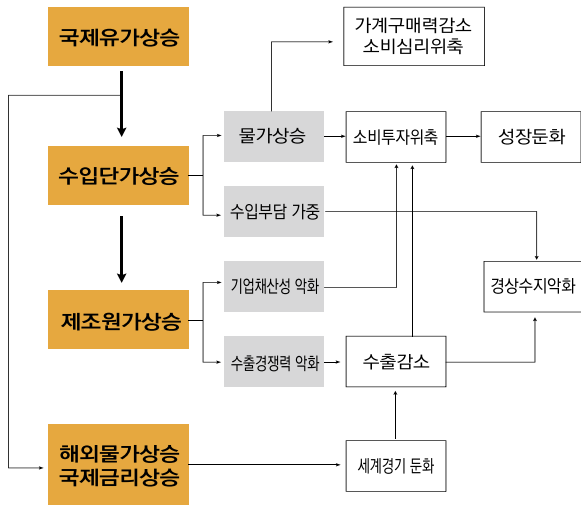
유가 상승의 경제적 효과²⁾

유가 상승은 거시경제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는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또한 원유 수입 부담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수익성이 저하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이 지역 경기 둔화 초래

그림 2. 유가 상승의 경제적 효과



자료 : 한국은행(2008)

유가 상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전의 석유 소비량은 2024년 기준 6,429천배럴로 전국 사용량의 0.67%를 차지 (한국석유공사)

- 석유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울산(181,164천배럴), 충남(217,096천배럴), 전남(198,171천배럴)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이 3개 지역이 전국 석유 소비량의 60%를 이상을 차지

석유 소비량은 산업구조, 경제 규모에 의존하므로, GRDP당 석유소비량을 이용하여 지역산업의 석유 의존도를 파악할 수 있음.

대전의 석유 의존도는 타지역 대비 낮게 나타나는데 서울, 광주, 세종 등과 함께 낮은 그룹에 포함

- 서비스업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석유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GRDP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석유 의존도는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3. GRDP당 석유 의존도

(단위 : 천배럴/십억원)



출처 : 「지역소득」, 국가데이터처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정유회사 등과 같이 원유를 직접적인 중간재로 사용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유회사가 생산한 석유제품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기업의 생산비용 또한 증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에 정유회사는 석유제품 가격을 올리고, 석유제품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기업들은 그들의 제품가격에 비용을 전가하며, 이러한 과정이 경제 내에서 반복되면서 국제 유가의 상승 영향이 전 산업에 파급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제유가의 상승이 전산업의 생산비용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²⁾

-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전량 수입으로 들어오는 원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가격 충격으로 가정

[표 2]는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지역별 생산비용 변화를 제시³⁾

2) 구체적으로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국제유가가 생산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가격 모형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특정 사업의 가격 변동이 다른 산업의 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각 산업들은 국제유가가 상승(e)하는 경우 전체 투입(Y)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oil)가 차지하는 비중(s)만큼 생산비용이 증가한다.

$$s = \frac{oil}{Y}$$

따라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별 생산비용의 변화(Δc)는 $\Delta c = s \times e$ 유가로 인한 생산비용의 파급효과 (Δp)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I-A)^{-1}$ 은 산업 간 중간재 투입구조를 반영한 가격파급효과 행렬을 의미한다.

$$\Delta p = (I-A')^{-1} \Delta c$$

3) 지역별 생산비용의 변화는 지역별 산업별 비중을 가중치로 활용하여 계산했다. 즉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i 지역 j 산업의 생산비용 증가분이 Δp_{ij} 이고, i 지역의 전체 산출량에서 j 산업의 산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w_{ij} 라고 하면 i 지역 전산업의 생산비용 증가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Delta P_i = \sum_{j=1}^J w_{ij} \Delta p_{ij}$$

대전의 경우 국제유가 10%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율은 0.19%로 타 지역 대비 고유가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0.16%), 제주(0.17%)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고유가 영향이 낮게 추정
- 반면 울산(1.52%), 전남(1.04%), 충남(0.67%)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는 고유가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추정

표 2. 국제유가 10% 상승 시 지역별 생산비용 변화

지역	증가율
서울	0.16%
부산	0.22%
대구	0.22%
인천	0.48%
광주	0.20%
대전	0.19%
울산	1.52%
세종	0.27%
경기	0.23%
강원	0.25%
충북	0.21%
충남	0.67%
전북	0.26%
전남	1.04%
경북	0.22%
경남	0.23%
제주	0.17%
전체	0.38%

주 :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 이용하여 저자 계산

대전을 대상으로 고유가가 산업별 생산 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된 결과가 [표 3]에 제시

- 국제유가 10% 상승시 생산비용이 0.4% 이상 증가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간재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시 가스 산업의 경우 국제유가 10% 상승시 생산비용은 6.54% 증가

유탄유 및 기타석유정제품(2.21%),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2.02%), 도로 운송서비스(1.10%) 등 석유가 주요 원재료인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

표 3. 국제유가 10% 상승 시 대전의 산업별 생산비용 변화

순위	산업	증가율
1	도시가스	6.54%
2	유탄유 및 기타석유정제품	2.21%
3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2.02%
4	도로운송서비스	1.10%
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00%
6	증기 및 온수 공급	0.98%
7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0.82%

8	화학석유	0.73%
9	기초유기화학물질	0.68%
10	시멘트	0.56%
11	플라스틱 1차제품	0.42%
12	콘크리트 제품	0.40%
13	기타 플라스틱제품	0.40%

주 :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 이용하여 저자 계산

시사점

대전의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로 인해 국제유가 상승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대전 전산업의 생산비용 증가율은 0.19%로 전국 증가율(0.38%) 하회
- 중간재에서 원유 비중이 높은 '도시가스', '유탄유 및 기타석유정제품' 등의 업종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

단, 고유가의 지속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6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2%로 최근 3개월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석유류, 공산품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시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

고유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차량 5부제, 에너지절약 정책 등 수요억제책 추진 필요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비용 감소와 함께 원자력, 수력,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확대 도모

※ 참고문헌

- 김위대 (2026), "중동사태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산업 파급효과,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 홍성욱·이원복·강성우·김정현 (2026), "미국-이란 전쟁의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이슈(2026-06), 산업연구원
- 한국은행 경기본부(2008), 「최근 유가 상승과 경기지역 경제」